

# 산업체 위탁생의 계속교육에 관한 만족도

김진수 · 장희경

신성대학교 치위생과

## Satisfaction with continuing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working in companies

Jin-Soo Kim · Hee-Gyung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sung University

**Received** : 14 February, 2013  
**Revised** : 10 April, 2013  
**Accepted** : 5 June, 2013

**Corresponding Author**

Hee-Kyung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sung University

1 Daehang-ro, Dangjin, Chungnam  
343-861, Korea.

Tel : +82-41-350-1491

+82-10-6284-3837

Fax : +82-41-350-1495

E-mail : alth3837@shinsung.ac.kr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periodontal diseases in Korean adults based on the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Method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from May 15 to June 15, 2012, 200 college students working in companies in Chungnam,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 1. Both study and work were distress to male and female students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 < .05$ ). 2. Major subjects satisfied male and female students ( $p < .05$ ).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 specific satisfaction. ( $p < .05$ ). 4.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college education ( $p < .05$ ). 5. The companies tried to understand the students' difficulty in studying ( $p < .05$ ).group.

**Conclusions** :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the practice and theory in college students working in companies.

**Key Words** : companies,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색인** : 계속교육, 만족도, 산업체

### 서론

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생산비용의 비교우위에서 기술혁신의 비교우위시대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질적 확충은 시대적인 추세로 요구되고 있다. 산업인력의 재교육과 직무향상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1981년 문교부의 승인 하에 울산공과대학교 병설공업전문대학교와 한국전력(주)간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 효시이며, 그 후 1991년 군위탁생제도 등을 거쳐 1994년 교육법 시행령 제161조 2항에 의거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대학들이 급변하는 사회발전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사회에서 대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축과 교육내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sup>1)</sup>.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은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근로자들을 정규교육 과정 속에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대학과 산업체가 위탁 교육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학과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만족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는 기업이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전문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산업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산업의 변화만이 아니라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의 생활의 여건과 의식 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 된다<sup>3)</sup>.

전문대학은 이론중심의 교육보다는 직업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통하여 상대적인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4)</sup>.

무엇보다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전문대학의 새로운 역할 찾기에 의미를 주려면 독자적인 역할을 모색해 해야 한다.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관리운영을 달리해야 한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근로자들의 인력개발, 다시 말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체계로 관리운영 되어야 한다. 개인적 의미에서 근로자의 자기개발과 함께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업무수행력 증진은 전직과 이직 혹은 개인들의 커리어 향상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업을 방지하는 잠재적 효과까지 갖고 있다<sup>5)</sup>.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기존연구로는 Stadt과 Gooth<sup>6)</sup>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정, 계획, 지도, 감독 하에 대학에서의 강의와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에 관한 학습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는 직업교육의 한 프로그램이다"고 정의한다고 보고하였고, Huffman<sup>7)</sup>은 직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강조하는 측면은 인간은 보다 나은 직업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며, 대학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Mason과 Haines<sup>8)</sup>는 미국에서는 산업체, 관공서, 연구소 등에 학생을 파견하여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가교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Greenwood<sup>9)</sup>는 산업체 위탁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 낭비를 막고, 생산력을 증가시키며, 고등교육을 통해 삶의 기준을 높여 생활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하였으며, 하<sup>10)</sup>는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학협력이 강화됨으로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산업체 현장실습의 기회가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과학기술과 정보화의 발전,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사회에는 봉사하는 대학으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sup>11)</sup>는 사회가 학력위주에서 능력위주로 급속히 선진화됨으로써 학

교도 산업체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과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성, 기술, 기능을 골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sup>12)</sup>은 학습자의 대부분은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직업적 능력의 향상, 사회적 관계형성, 사회봉사의 참여, 일상생활의 탈출, 커뮤니케이션 기술향상, 진학준비, 경제적 요구 등 실생활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체가 전문대학의 교육 및 재학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학 구성원의 취업에 대한 의식을 전파시키며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전문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남에 위치한 S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 재학생들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지에 응답하고 회수 하였다. 총 215명의 학생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나 이중기입, 무응답 등이 있는 불성실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Table 1).

###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최<sup>13)</sup>의 연구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학과, 학년, 성별, 연령), 산업체 위탁교육 진학동기 및 애로사항 2문항(직장인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만족도 3문항(직장생활과 사회발전 추세로 보아 가장 필요한 과목, 더 보완해야 할 과목, 실무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습), 산업체 위탁교육 교수 만족도 3문항(교수의 강의내용과 수준, 지도교수의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지도내용과 방침,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측정하였으며 .836이었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SPSS Inc., USA) 프로그램을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Subdivision	N	%
	Total	200	100.0
Discipline	Dept. of Automobiles	52	26.0
	Division of electrical engineering	38	19.0
	Dept. of Fire safety management	16	8.0
	Dept. of Construction	28	14.0
	Dept. of Tax & Real estate	21	10.5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45	22.5
	Grade	One grade	96
Two grade		104	52.0
Gender	Female	44	22.0
	Male	156	78.0
Age	Under the age of 25	40	20.0
	26~30 years	28	14.0
	31~35 years	40	20.0
	36~40 years	30	15.0
	At least 40 years of age	62	31.0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산업체 위탁교육 진학동기 및 애로사항,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 산업체 위탁교육 교수 만족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진학동기 및 애로사항,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수 만족도는 교차분석(chi-square test) 또는 정확검정(exact test)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 연구성적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산업체 위탁교육을 운영하는 6개과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과는 자동차계열 52명(26.0%)이었으며 소방안전관리과가 16명(8.0%)으로 가장 낮은 학생 수로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보다 2학년이 104명(52.0%)으로 많았고,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156명(78.0%)로 훨씬 많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40세 이상 6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26~30세 28명(14.0%)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 2. 산업체 위탁교육 진학동기 및 애로사항

산업체 위탁교육 진학동기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Table 2).

직장인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승진, 보직, 직무만족 등 자기발전을 위하여' 89명(44.5%)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

Table 2. Industry commissioned education pathways motives and grievances

Variable	Subdivision	N	%
	Total	200	100.0
Workers as the motivation to go to college	To other colleagues in the workplace to keep abreast	6	3.0
	Try to stick to the job at work	28	14.0
	For the development of self-promotion, appointment, job satisfaction	89	44.5
	Education to complement	59	29.5
	Try to transfer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or graduate school	18	9.0
	From attending classes difficult thing	Studying habituation	28
	Not follow the lectures sense	26	13.0
	Double life of suffering at work and school	103	51.5
	Night on personal privacy do not inconvenience	16	8.0
	Workplace tasks difficult to attend a plethora	27	13.5

Table 3. Industry commissioned education satisfaction

Variable	Subdivision	N	%
	Total	200	100.0
Work life and social development trend seen most required courses	Language study	28	14.0
	Professionals	97	48.5
	Tenacity	25	12.5
	Working spirit	8	4.0
	Computer	42	21.0
Courses need to be more complementary	Liberal arts	34	17.0
	Majors	77	38.5
	Subject areas of language, such as english, japanese	47	23.5
	The field of computer courses	30	15.0
	The field of character education course	12	6.0
View,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when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from the university	Basically equals	36	18.0
	Provide a basic foundation	91	45.5
	Moderate level	33	16.5
	Somewhat different	30	15.0
	Realistic a severe discrepancy	10	5.0

내 다른 동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6명(3.0%)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직장과 학교의 2중 생활 고통'이 103명(51.5%)으로 가장 불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3.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직장생활과 사회발전 추세로 보아 가장 필요한 과목은 '전문능력' 97명(48.5%)으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근로정신' 8명(4.0%)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더 보완해야 할 과목에서는 '전공과목' 77명(38.5%)으로 가

장 많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은 응답하였다.

실무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습 질문에서는 '기초적 토대를 제공한다' 91명(45.5%)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4. 산업체 위탁교육 교수 만족도

산업체 위탁교육 교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Table 4).

교수의 강의내용과 수준에서는 101명(50.5%)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도교수의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지도내용과 방침에서는 97명(48.5%)이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내용 질문에서는

Table 4. Industry commissioned education professor satisfaction

Variable	Subdivision	N	%
Professor of the course content and level	A very high level	43	21.5
	high level	101	50.5
	Moderate level	53	26.5
	A slightly lower level	1	.5
	A very low level	2	1.0
Map information and guidelines on all aspects of college life advisor	Very adequate	62	31.0
	Adequate	97	48.5
	Usually	37	18.5
	A little inadequate	4	2.0
Professors want most hoping	More faithful to the teaching vary	11	5.5
	Different classes adequate to duties of a job	30	15.0
	Please understand the difficulty worker	140	70.0
	A more favorable relationship is needed	7	3.5
	On tests, assignments, assessments objectively and fairly to different	12	6.0

Table 5. Pathways according to sex industry commissioned education motives and grievances N(%)

Variable	Subdivision	Gender		x <sup>2</sup>	p
		Female	Male		
	Total	44(22,0)	156(78,0)		
Workers as the motivation to go to college	To other colleagues in the workplace to keep abreast	1(16,7)	5(83,3)	1,704	.790
	Try to stick to the job at work	8(28,6)	20(71,4)		
	For the development of self-promotion, appointment, job satisfaction	18(20,2)	71(79,8)		
	Education to complement	12(20,3)	47(79,7)		
	Try to transfer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or graduate school	5(27,8)	13(72,2)		
From attending classes difficult thing	Studying habituation	4(14,3)	24(85,7)	10,835	.028*
	Not follow the lectures sense	5(19,2)	21(80,8)		
	Double life of suffering at work and school	31(30,1)	72(69,9)		
	Night on personal privacy do not inconvenience	29(12,5)	14(87,5)		
	Workplace tasks difficult to attend a plethora	2(7,4)	25(92,6)		

\*p-value by chi-square or exact test

‘직장인으로서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 140명(70.0%)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5.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진학동기 및 애로사항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진학동기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Table 5).

직장인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승진, 보직, 직무만족 등 자기발전을 위하여’ 여자 18명(20.2%), 남자 71명(79.8%)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에서는 ‘직장과 학교의 2중 생활 고통’ 여자 31명(30.1%), 남자 72명(69.9%)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 6.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 다음과 같다(Table 6).

직장생활과 사회발전 추세로 보아 가장 필요한 과목은 ‘전문능력’ 여자 25명(25.8%), 남자 72명(74.2%)이 가장 높게 응답률을 보였다.

더 보완해야 할 과목에서는 ‘전공과목’ 여자 18명(23.4%),

남자 59명(76.6%)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실무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습에서는 ‘기초적 토대를 제공 한다’ 여자 17명(18.7%), 남자 74명(81.3%)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 7.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수 만족도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수만족도는 다음과 같다(Table 7).

교수의 강의내용과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이다’가 여자 19명(18.8%), 남자 82명(81.2%)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지도교수의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지도내용과 방침에서는 ‘적절 하다’가 여자 20(20.6%), 남자 77명(79.4%)으로 나타났다.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 여자24(17.1%), 남자 116명(82.9%)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Table 6. According to gender industry commissioned education satisfaction

N(%)

Variable	Subdivision	Gender		$\chi^2$	p
		Female	Male		
	Total	44(22.0)	156(78.0)		
Work life and social development trend seen most required courses	Language study	4(14.3)	24(85.7)	4.613	.329
	Professionals	25(25.8)	72(74.2)		
	Tenacity	3(12.0)	22(88.0)		
	Working spirit	3(37.5)	5(62.5)		
	Computer	9(21.4)	33(78.6)		
Courses need to be more complementary	Liberal arts	3(8.8)	31(91.2)	13.112	.011*
	Majors	18(23.4)	59(76.6)		
	Subject areas of language, such as english, japanese	9(19.1)	38(80.9)		
	The field of computer courses	7(23.3)	23(76.7)		
	The field of character education course	7(58.3)	5(41.7)		
View,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when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from the university	Basically equals	15(41.7)	21(58.3)	12.496	.014*
	Provide a basic foundation	17(18.7)	74(81.3)		
	Moderate level	6(18.2)	27(81.8)		
	Somewhat different	3(10.0)	27(90.0)		
	Realistic a severe discrepancy	3(30.0)	7(70.0)		

\*p-value by chi-square or exact test

## 총괄 및 고안

산업구조가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는 계속 기술집약적 고부가 가치화를 추구하게 되고, 3차 4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보관련 산업은 고도화를 중심으로 고용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로이 확산되는 직종구조의 변화는 더욱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면서 그 인력의 평균 자질도 높이가 요구되며, 더욱 고도의 전문성과 특정 기술을 요구하게 되어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의 대중화, 보편화 현상을 유발하여 전통적인 고학력 풍조와는 또 다른 실질적 수요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전개되면서 교육수요의 이질성이 필연적으로 심화되므로 이질성을 포함하고 있는 대상 집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발 및 실시가 어느 교육계층보다도 전문대학의 기능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에 위치한 S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가 전문대학의 교육 및 재학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학 구성원의 취업에 대한 의식을 전파시키며,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전문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발전방

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직장과 학교의 2중 생활 고통'을 분석한 결과, 최 등<sup>14)</sup>의 연구에서는 6가지 질문 중에 3가지를 선택했는데 직장과 학교의 2중 생활 고통이 95명 (33%)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직장 업무과다로 등교 곤란이 88명(30%), 공부하는 습관화가 안 됨이 34명(12%)으로 보고하였고, 최<sup>15)</sup>의 연구에서 다양성이 많을 것으로 보아 3개까지 응답토록 한바, 가장 애로는 직장과 학교의 2중 생활 고통을 27%가 지적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보였고, 다음은 야간에 개인 사생활 없어 불편이 19%, 강의내용을 못 따라감이 17%로 나타나 장기간 수학에서 벗어난 생활에서 나오는 개인 사생활의 제약이나 강의 수준에 못 미치는 한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서<sup>16)</sup>의 연구에서 교육을 받으며,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포괄적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직장문제가 73.3%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가정생활이 11.1%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 중에서 더 보완해야 할 과목은 '전공과목'을 분석한 결과, 홍<sup>2)</sup>의 연구에서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은 기업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전공코스를 학교가 개발하여 실질적인 실무

Table 7.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 industry commissioned education professor N(%)

Variable	Subdivision	Gender		$\chi^2$	p
		Female	Male		
	Total	44(22.0)	156(78.0)		
Professor of the course content and level	A very high level	6(14.0)	37(86.0)	9.548	.049*
	High level	19(18.8)	82(81.2)		
	Moderate level	19(35.8)	34(64.2)		
	A slightly lower level	0(0)	1(100.0)		
	A very low level	0(0)	2(100.0)		
Map information and guidelines on all aspects of college life advisor	Very adequate	13(21.0)	49(79.0)	2.321	.509
	Adequate	20(20.6)	77(79.4)		
	Usually	9(24.3)	28(75.7)		
	A little inadequate	2(50.0)	2(50.0)		
Professors want most hoping	More faithful to the teaching vary	5(45.5)	6(54.5)	11.619	.020*
	Different classes adequate to duties of a job	7(23.3)	23(76.7)		
	Please understand the difficulty worker	24(17.1)	116(82.9)		
	A more favorable relationship is needed	4(57.1)	3(42.9)		
	On tests, assignments, assessments objectively and fairly to different	4(33.3)	8(66.7)		

\* p-value by chi-square or exact test

교육이 현장적응력 향상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16.76%가 답하였다. 실험 실습교육의 강화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4.8%이르렀다. 즉 실험실습교육 및 세분화된 전공별 교육으로 현장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최<sup>15)</sup>의 연구에서 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쓰여 지는 분야이며, 특히 고 연령층으로 컴퓨터 20%, 어학 19%, 전공 분야 과목 16% 더 많은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은 산업체에서 오랜 경력기간 중 실무적 필요성의 강도를 인정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최<sup>15)</sup>의 연구에서 실험실습과목 25%, 컴퓨터과목 21%, 어학과목 19%, 전공과목 13% 순으로 나타나 현장위주 교과과정의 충실도가 빈약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보완 강화 대상임을 암시한다고 보고하였고, 한 등<sup>17)</sup>의 연구에서 전공 심화과정의 운영방안을 위해 학습하고 싶은 교과목은 전공분야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유 등<sup>18)</sup>의 연구에서 계속교육의 교육효과와 만족도로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학습을 통한 심리적 성취감을 느꼈다는 인식은 고려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의 계속교육 여건을 보완하여 학습지원을 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실무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습은 '기초적 토대를 제공 한다'를 분석한 결과, 최<sup>15)</sup>의 연구에서

기초적 토대를 제공 한다 40%, 다소 차이가 있다 23%, 기본적으로 상통 한다 15%, 보통수준이다 23% 순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직장실무와 대학의 이론과 실습이 기본적으로 상통하거나 기초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보아 산업현장과 괴리된 강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최 등<sup>14)</sup>의 연구에서 기초적 토대를 제공 한다 50%, 다소 차이가 있다 17%, 보통수준이다 18%로 나타났으며, 과반수이상인 현장실무와 대학의 이론과 실습이 기본적으로 상통하거나 기초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보아 산업현장과 괴리된 강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수의 강의내용과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를 분석한 결과, 최<sup>15)</sup>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 51%, 보통수준 45%, 매우 높은 수준 3%순으로 나타났고, 조금 낮은 수준 또는 매우 낮은 수준은 거의 없음을 볼 때 대체로 높은 수준이상이 54%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강의 내용과 수준이 보통이상이고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최<sup>15)</sup>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이다 58%, 보통 수준이다 25%, 매우 높은 수준이다 1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공심화과정으로 갈수록 교수의 강의 내용과 수준이 전문화, 고도화 된 강의로 나타남으로 신지식과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만족도가 높아 감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으며, 서<sup>16)</sup>의 연구에서 학과 교수의 교육생들에 대한 관심도와 강의에 대한 결과 91.7%가 관

심이 높다는 반응이었으며, 강의는 94.4%가 열성적이고 열심히 한다고 하였고, 학과 교수진의 수준은 89.5%가 우수하다고 하였으나 전공교육 수준은 68.4%만이 높은 편이라고 하여 전공 교육내용의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직장인으로서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를 분석한 결과, 최<sup>15)</sup>의 연구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가 66%, 직장의 직무에 적합한 수업을 해달라가 14%, 좀 더 호의적 관계가 필요하다 10%로 보고하였으며, 최<sup>15)</sup>의 연구에서 직장인 애로 이해 80%, 직장 직무 적합 수업 14%가로 절대 다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직장애로를 이해해줄 것을 요망하는 것은 직장 직무압박이 매우 거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 산업체 위탁 교육의 정착화 방안은 법규적,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산업현장 근무자의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한정 실시하는 운용적인 학사행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아 교육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가 개제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표본선정의 과정이나 표본의 대표성의 한계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지역이 한정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가운데 위탁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본 연구는 산업체가 전문대학의 교육 및 재학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학 구성원의 취업에 대한 의식을 전파시키며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전문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남에 위치한 S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 재학생들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애로사항 중에서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직장과 학교의 이중생활 고통' 남녀 모두 많이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2.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 중에서 더 보완해야 할 과목은 '전공과목' 남녀 모두가 많은 응답률

로 인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3.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 중에 실무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습은 '기초적 토대를 제공 한다' 남녀 모두가 많이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4.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수 만족도 중에 교수의 강의내용과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남녀 모두가 많은 응답률로 인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5. 성별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 교수 만족도 중에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직장인으로서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 남녀 모두가 많은 응답률로 인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급자인 대학과 교수, 수요자인 산업체와 위탁생 등 통합적으로 접근한 산학협동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질적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인 산업체 위탁교육의 틀을 제시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1. Jung CJ, Shin SH, Study on the substantiality of the industry commissioned education measures. *Tourism Management Studies* 2001; 10(13): 325-39.
2. Hong YH, Park GH, Satisfaction for the industry in the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 12(9): 3967-74.
3. Shon CK, University curriculum higher education.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02; 120: 84-91.
4. Kim HS, Employment oriented job education system with college education reform plan. *Korean Society of the College Education* 2002; 1: 15-41.
5. Ki YH, Shin MS, Ahn LH, Cho YJ, Kim HH, A study on colleges' participation in college education for employees commissioned by companies. *Korea Industrial Education Institute* 1999; 12(6): 5-31.
6. Stadt RW, Gooth BG, Cooperative education vocational occupational career. Indianapolis: Bonns-Merroll educational publishing; 1980: 31-2.
7. Huffman H, Cooperative vocational education. *American Vocational J* 1981; 44(5): 16-8.
8. Mason RE, Haines PG, Cooperative occupational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in the curriculum, 2nd ed. Danville, IL: The interstate publishers and printers; 1981: 1-154.
9. Greenwood KB, Contemporary Challenges for Vocational

- Education. Anngton, Virginia: The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1981: 295.
10. Ha YS, An empirical study on activation of college education for employees commissioned by companie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1997.
  11. Lee BR, A research into the perception of adult learning processes among college students working in companie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2004.
  12. Han GH, A research into the perception and learning performance of adult learners in industrial college education for employees commissioned by companies[Doctoral dissertation]. Gangwon: Univ. of Kangwon National, 2012.
  13. Han IC,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s of college education for employees commissioned by companies 1994, Seoul: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eminar; 1994: 14-9.
  14. Choi SW, Park GS, Ju WS, A multidimensional analytical approach to the establish of college education for employees commissioned by companies,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98; 11(9): 203-36.
  15. Choi SW, An empirical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ir improvements in college education for employees commissioned by companies,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99; 6(3): 317-52.
  16. Seo GS, A study on vitalization of college education for employees commissioned by companies, Tourism Management Studies 1997; 19(2): 103-29.
  17. Han JH, Jung YR, Jung YS, A demand for opening and a plan for operation on major deepening course f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some regions,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3): 363-72.
  18. Yoo KH, Lee SK, Seong JM,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hygienists for the job satisfac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4): 771-80.

